

<觀 我 臺>

문교부의 「도서관기구 개편안」에 一言한다

문교부는 지난 5월 28일자 「문교부 시달, 대학 1040~843호」로 사학기관의 기구 개편에 대한 「문교부 시달 준칙」을 전국사립대학 총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동 시달 준칙」 내용에 있는 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보면 (1) 대학, 초급대학 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는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일반적으로,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도서관학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갑작스런 「문교부시달 준칙」 내용이 너무도 大學도서관의 업무내용과 그 기능을 모르고 만든 「준칙」인 것 같아 도서관인의 실망은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가 지난 6월 13일 2시 단국대학교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문교부장관 앞으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의 「수정 희망안」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협의회 소속 대학교 총장과 도서관장에게도 각각 공문을 보내어 동 협의회가 채택한 「수정 희망안」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동 협의회가 마련한 「수정 희망안」의 주요골자는 『대학·초급대학 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는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각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과장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하는 이유로서 열람과장이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서자격을 가진 자로 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전문적인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과장 역시 도서관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보하여야 도서관 업무처리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로서 (1) 도서관법 제6조와 (2)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이번 동 협의회의 건의안은 시이에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문교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어떻든 우리로서는 이번엔 문교부가 「시달 준칙」을 내리는데 있어 사전에 한국도서관협회나 대학도서관총과 한마디 상의쯤은 할 수 있었을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현재 도서관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감독관청인 문교부의 전담부서는 「사회교육과」인데, 거기에는 도서관학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문교부가 도서관 육성에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지 않은 실증이기도 하다.

대학의 발전은 도서관 발전이 그 전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차체에 문교부 사회교육과에 「사서관」을 배치해서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발전과 도서관의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현재 우리 도서관인의 유일한 대변기구인 한국도서관협회만 하더라도 여러 해 전부터 자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제대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음을 생각할 때, 직접 감독관청인 문교부나, 도서관인 스스로가 「도협」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다.

사실,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많으나, 이를 건의할 기구가 허술하고 보면 그만큼의 육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엔 「문교부 시행 준칙」이 문교부 독자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 「도협」의 대외활동의 부진에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협」은 무엇하는 곳이나고 자꾸 나무라기에 앞서 그동안 도서관인들은 「도협」의 육성을 위해 무슨 일을 했었는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니만큼 우리 다 같이 반성하면서 차체에 「도협」의 발전책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 할 것 같다. 「도협」의 육성없이 도서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朴尙均)